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총력전

중장기 계획 용역보고회 갖고 여성 창업방·농업인센터 운영 안심비상벨·게스트하우스 등 인프라 구축 과제·전략 논의 여가부 28일 신규지정 심사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양시와 나주시, 장성군 등 3곳으로 장성은 제외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양시도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여성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 등을 논의했다.

광양시는 ▲낙낙한 광양 ▲편하고 안전한 광양 ▲가족이 행복한 광양 ▲참여하



광양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신규 인증 심사를 앞두고 '중장기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통해 세부 실행 과제 등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는 광양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18개 정책 과제와 66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성·확산·도약 등으로 나뉘어 내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19~2020년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2021~2022년 여성친화거리 조성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모든 영역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실현하겠다는 게 광양시 구상이다.

분야별로는 낙낙한 광양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 창업방·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회적 경제 여성 참여 및 여성친화기업 인

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는 한편, '편하고 안전한 광양'에 필요한 정책에는 공동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여성안심 게스트하우스 지정, 100원 택시 확대, 배려주차장 설치와 여성인권감사 육성 등을 꼽았다.

또 '가족이 행복한 광양'을 위해 공공시설물과 생활공간에 대한 가족친화시설 정비, 장난감도서관·농번기 마을공동급식·시간 차등 어린이집 확대, 병원 아동보호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광양'에는 여성친화거리 조성과 여성미래센터 설치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14개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한다는 게 광양시 입장이다.

14개 사업에는 여성 커뮤니티방 개설, 여성친화형 도서관 운영, 마을플래너 육성, 시민참여형 종합안전지도 제작, 여성정보방 구축, 여성참여 도시재생사업, 체인지 여성리더십 교육 등도 포함됐다.

광양시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조례(6월)를 개정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갖는 등 도시 조성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의 개선 방안, 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예산·인사부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등도 꼼꼼히 점검해왔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창의예술고 건립 사업 차질

이순신대교 관광 테마거리 포함 행사부 재검토 판정

광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해온 핵심 현안들의 사업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열린 '2017년 제 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광양시가 추진 중인 '창의예술고 건립사업'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제 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 올린 전남 지역 14개 사업 중 재검토 결정은 광양 2개 사업과 영광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 등 3개다.

창의예술고 건립사업은 동부권 예술고 설립 계획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으로, 9학급 180명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광양시는 전체 320억원의 사업비 중 광양커뮤니티센터를 예술고 부지로 제공하는 한편, 기숙사·급식실·운동장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의 개선 방안, 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예산·인사부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등도 꼼꼼히 점검해왔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지난해 4월 이뤄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저정' 결정을 받아 애초 계획(2018년 3월 개교)대로 설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광양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행사부는 ▲교육부 인재개발을 위한 고위 목적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 ▲전국 예술고 조사를 통해 국·공립 운영사례 및 자치단체 지원사례 조사 뒤 검토할 필요성 ▲도비 확보를 통한 광역·도 사업을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비슷하다. 국비와 시비 등 180억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달빛광장(3만 7071㎡)과 이순신대교를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광양시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판정으로 사업을 제 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이 미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초등생 1000명이 만든 교통사고 예방 '안전엽서' 눈길

광양시 계도 활동 펼치기로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엽서'를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생 1000여명이 참여해 만들어진 엽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안내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글과 그림을 집어넣었다.

시는 광양시 새마을회 교통봉사대, 광양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통해 스쿨존 내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엽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엽서를 통해 스쿨존 내 주·정차의 경우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게 광양시 계획이다.

광양시 아동청소년년 관계자는 "아동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말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아이들이 만든 안전엽서. <광양시 제공>



아이들이 안전엽서를 제작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초등생·학부모 힐링캠프

광양시보건소 내일 개최

광양시 보건소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중이다.

캠프는 오는 25일 '마음을 두드리는 Talk! Talk! '우리가족 행복찾기'를 주제로 봉강면 햇살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초등학생 4학년과 가족 등 24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8일 옥룡면 백운산프라자에서 열린 1회 때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과 가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천연기념물 옥룡사 동백나무 숲 보존 방안 마련 나서



광양시가 천연기념물 제 489호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보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동백나무 숲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동백나무 숲 보존 및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는 앞서 동백나무 숲 생물환경 및 분포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동백나무 숲 과거 지형과 병충해 발생 현황 뿐 아니라

11월 초 동백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등에 대한 보존·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옥룡사 동백나무가 11월에 꽃을 피운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옥룡사 동백나무 숲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7,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심어졌고 매년 3월 말이면 꽃이 피는 것을 보려는 상춘객들로 북적인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지원 및 예적금방위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